

마구잡이식 증·개축
도로·주차장 등 공사
정부 토지 강제수용
일본식 조형물 예사

몸살앓는 전통사찰

정원학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대책요구

'마구잡이식' 건축행위를 규제해 전통사찰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 하자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 등 관련 연구자들은 9월23일 열린 정원학회 창립20주년 세미나에서 최근 전통 사찰의 증·개축과 주변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사례 등이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 고 나섰다.

학계에 따르면 스님의 생활과 신 도의 수행 환경 개선에 따른 증· 개축이 늘고 있으며, 전통사찰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진입도로나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울산 석남사·청룡암, 김천 직지사, 완도 신흥사, 안동 연미사, 구미 원각사, 수원 청련암, 문경 봉암사 등은 사찰 수행 환경에 해를 입었다. 또 합천 해인사와 부산 백양사 등의 사찰 자연 환경 역시 잃 어버렸고, 불국사의 일주문과 천왕

문, 해인사의 구광루, 용주사의 요 사체(스님 거처) 등은 전통사찰의 원형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잘못된 시공과 공사장 관리 소홀로 전통사찰 주변의 수질 이 악화되고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 나는가 하면, 전통 조경 및 건축 양식을 무시한 채 일본식 조경과 조형물 등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더 이상의 훼손 을 막기 위해 △개발 억제 △관련법 정비 △불사위원회 신설 등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불사위원회'는

건축·조경·불교미술 등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기구 로, 전통사찰의 경관이 제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건축불사의 범위·방 법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특별기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이날 '전통사찰의 보존'을 발표 한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전통사찰은 경내뿐 아니라 경 외의 환경까지도 바라보는 총체적 인 틀 속에서 보존·관리되어야 한 다"며 "전통사찰의 건축불사나 지 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는 9월28일 명동성당에서 2천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명동일대에서 기둥 서명과 홍보 스티커 배포 활동을 벌였다. 사진=고병배 기자

학인 76% "기본교과 통일 바람직"

조계종 691명 의식조사

전국의 강원 학인 76.4%가 기본 교육 교과과정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혀 기본교육 교과과정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과 조계종 경학원이 8월 한달동안 전국의 사미 사미나 강원 학인을 대상으로 지방 승가대학 교과과정 통일 및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691명(사미 221명, 사미니 470명)의 강원 학인 들은 현재의 강원교과가 사교입신(捨敎入禪)을 위한 이력과정으로 편성된 것을 개편해야 한다(388명,

56.2%)는 견해를 보였으며 불교일 반을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 해야 한다(346명, 50%)고 응답했다.

또 강원교육이 내전에 치우쳐 외 전의 결여로 스님들이 현대문명을 계도하거나 포교활동에 별다른 도 움을 주지못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 한다(368명, 52%)는 응답이 공감하 지 않는다(255명, 36%)는 대답보다 높았다.

외전과목중 선호하는 교과목으로 는 종교학개론(258명, 37%) 비교종 교학(92명, 13.3%) 서양철학사(75 명, 10%)순이었다.

외국어교육 시행에 대해서도 반 대(221명, 32%)보다 시행해야 한다 (446명, 64%)는 응답이 높았으며

지리산 국민행동 낙동강 1300리 순례

민족의 성산 지리산과 민족 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자는 발원을 안고 1300리 낙동강 물 줄기를 따라 걷는 도보순례가 10월16일 낙동강 발원지인 강 원도 태백 활차에서 시작된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살림 공동대표 수경님 외 3인)은 삼일공동대표 수경님을 단장 으로 원불교 천지보은회와 녹색연합 등 종교·환경·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환경순례단을 구성, 낙동강 500km를 한달간 답사하며 환경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례단은 대구, 안동, 부산 등의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토 론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주요지점에서 수질검사 등 생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경님은 "낙동강 물이용 주사단이 발표한 환경평가서 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낙동강 수질 개선 여론을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사범 전담반 촉구 호남 본말사 주지 결의문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금산 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본·말사 주지 182명은 9 월 26일 문화재 도난사건 근절을 위해 각 경찰청에 문화재사범 전담 반을 구성해 문화재 도난사건의 예방과 도난범 조기검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광사에서 개최된 호남 지역 본말사 주지연수회에 참석한 주지사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은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2천만 서명운동

11·21일 국민행동의 날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공동 상임대표 법장스님 등 5명)는 9월 28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달라이라 마 방한성사와 문화유전 회복을 위 한 2천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달라이 라미의 방한허용을 촉구하 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방한준비위는 선포식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평화애호와 인류적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한 달라이 라 마의 방한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 국의 부당한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 려는 정부의 무력함과 사대외식을 극복하고 문화유전 수호를 위한 국

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 다.

준비위는 또 "정부는 당초에 약속한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이후 달라이 라미의 방한허용 입장을 실천해야 하며, 중국정부는 주권국간에 존중되어야 할 외교적 원칙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정 신·문화적 중요성을 위해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방한준비위는 강원음목사와 백창 기 조계종신도회장, 박광서 재가연 대 상임대표,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 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을 마친뒤 명동일대에 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방한허용

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 했다.

방한준비위는 30일 부산과 광주 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학 계, 문화계, 시민단체, 여성계, 법조 인 등 각계 대표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한편 제3차 아시아·유 럽정상회담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방 향이다.

또 11일과 21일을 국민행동의 날 로 정하고 10월말에는 종교지도자 합동기자회견과 방한허용 촉구 종 교인집회 및 촛불행진을 통해 달라 이라마 방한을 촉구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 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찬성" 시민 10명중 9명

일반 시민 10명중 9명이 달라이 라미의 방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합뉴스 인터넷 사 이트(www.yonhapnews.co.kr)가 최 근 실시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나타난 것.

9월26일 현재 총 3896명이 투표해

이중 3350명(86%)이 찬성하고 546 명(14%)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들이 달라이 라미를 티 베트 불교의 지도자로서뿐만 아니 라, 평화·인권·영성의 세계적 지 도자로서 종교를 떠나 그의 방한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중국불교협 반대입장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중국불교협 회 도술인 부회장이 달라이 라미의 방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술인 부회장은 9월 26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원택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불 교계에서 달라이 라미를 초청한 것 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도 부회장은 또 달라이 라미 방한 반 대 입장을 담은 중국불교협회 티베 트위원회와 티베트불교계 인사 명으 로 작성된 서한을 원택스님에게 전 달했다.

이에 대해 원택스님은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서한에는 "만일 한국에서 달라이 라미를 접대한다면 두 나라 관계에 해롭고, 두 나라 불교계의 교류에 도 해롭다"는 경고성 내용도 담겨 있다.

정성은 기자

조계종 사면복권 운동본부 발족

수 차례의 조계종 분류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 운동본부'가 9월25일 서울 대각사에서 발족했다. 이날 운동본부의 상임대표에는 분원정사 주지 원성스님, 공동대표에는 불교인권위 공동 대표인 진관·지원스님과 새불교운동전승가회 공동대표 진옥스님, 수좌출신 법성스님이 선임됐다.

사면복권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

해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져 가는 이 때에 일대사 인연을 깨닫고자 출가한 우리들이 서로를 의면하고 시비만을 분별한다면 중생의 사표 가 될 수 없다'면서 "초발심으로 돌아가지"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사면 및 복권을 위한 승가 서명운동과 공회회 개최, 모든 시비는 율정에 근거해 처리할 것 등 을 결의하고 각 교구본사 주지 면담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1일 '세계 채식인의 날' 사회·종교단체 행사 다채

10월1일은 '세계 채식인의 날'. 불자들은 이 날을 계기로 '고기 사체'를 먹는 것을 지양하고 채식 을 통해 생명의 경외와 마음의 평 화를 느껴보면 어떨까.

스님들은 "채식을 하면 화를 적 게 내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생 명에 대한 경의심이 우러난다"고 말한다. 물론 건강에도 탁월한 효 과가 있다.

육식을 하는 이는 채식자에 비 해 발암율이 3배이상 증가한다. 유방암의 경우 3.6배, 전립선암은 3.8배에 달한다. 암뿐만 아니라 동물지방으로 인한 혈관 막힘현상 은 심장마비 가능성을 10배나 증 가시킨다.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이 생명존 중과 기아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매년 인간의 음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17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매년 1000여종의 동물이 멸종), 목축으로 인한 숲의 사막 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료용 곡물을 줄임으로써 가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푸른생명한국채식연 합은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원형무대에서 기념행사를 개

최했다.

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SM명상, 제7안식일교회, 개교기 반대운동본부 등 환경·종교·동물보호 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행 사는 채식헌장(동물의 생명존중, 환경보호, 건강증진, 기아해결, 생 명사회 등) 발표, 채식관련 동물 곡물을 줄임으로써 가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푸른생명한국채식연 합은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원형무대에서 기념행사를 개 최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뼘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보타 마스터/일상심리 전문가 김정현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풍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초·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 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 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 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 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 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재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재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 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 불당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불당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재 만다라와 팔재불당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 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 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 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 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